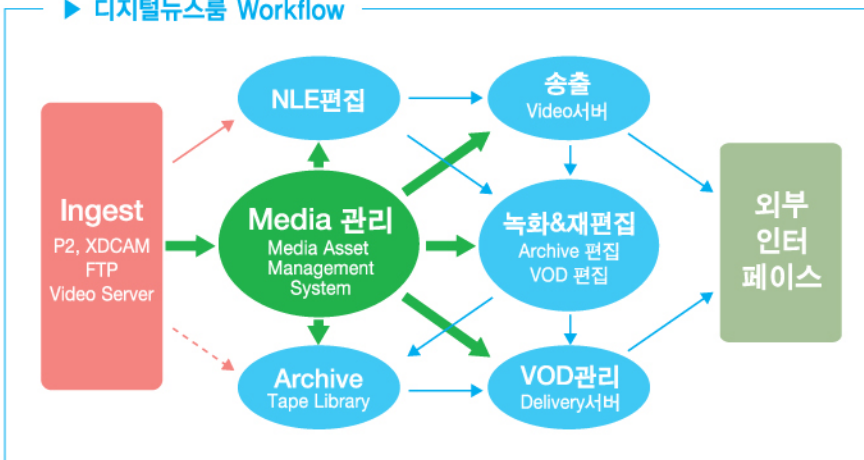


디지털뉴스룸 Web시스템으로 개발

PC에서 영상 검색 · 편집, 뉴스제작에 획기적 도움

▶ 디지털뉴스룸 Workflow



여개의 프로그램이 서로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개발 중이다.

<디지털뉴스룸의 특징>

현재 개발 중인 디지털뉴스룸은 타 방송사와 달리, Web 시스템으로 개발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Web으로 구현하면 개발에 약간의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NLE와 장비의 호환성을 위해서, 좀 어렵더라도 이 방법을 사용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룸이란?> 디지털뉴스룸시스템은 콘텐츠를 디지털화, 저장, 편집, 아카이브, 전송, 배포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써, 방송사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NDS(News Digital System), NPS(Network Production System)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디지털뉴스룸의 필요성> HD 방송시스템은 Tapeless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영상이 디지털화 되면 수천, 수만 건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업용 미디어자산관리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HD 방송은 고화질, 대용량의 영상파일을 공유해야 하고 특수한 Workflow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구축 중인 뉴스룸시스템의 MAM 시스템은 24시간 뉴스채널인 YTN에 적합하도록 개발 중이다. 이미 하드웨어는 모두 입고되어 Networking까지 설치작업이 완료되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12월말 사용을 목표로 프로그래밍 중이다.

<디지털뉴스룸의 구성> 디지털뉴스룸은 여러 개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비선형편집기를 위주로 중앙 Storage, Ingest 시스템, Archive 시스템, 초고속 Network, 미디어자산관리시스템(MAM : Media Asset Management)등으로 구성된다. 비선형편집기(NLE : Non Linear Editor)는 컴퓨터편집시스템으로써, 1세트에 1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1:1 VCR 편집기를 대체하면서, 약 1/5 비용으로 다양한 효과와 신속한 HD, SD 편집을 가능하게 해준다. 중앙 Storage는 대용량 파일을 여러 영상편집자가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고성능의 하드 디스크시스템이다. 이들은 초고속 Network로 연결되어 있고, HD/SD 파일을 MAM System의 제어에 의해 이동한다. 그리고 Archive 시스템은 디지털 영상파일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대용량 Data Tape Library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 개발 중인 MAM 소프트웨어는 약 200

라도 이 방법을 사용할 예정이다. 촬영된 영상자료가 시스템으로 Ingest가 완료되면 PC에서 다양한 검색, 관리, 저화질 영상으로 편집요청이 가능하다. Ingest할 때 인물 등을 자동 추출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으며, 사용이 완료된 자료영상은 5만 시간 정도의 Digital Archive 시스템으로 이동하여 보관된다.(Ingest 관리자가 기사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입력해야 검색하기 쉽고, 영상자료의 가치가 있다). Archive된 영상은 PC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Network으로 다시 불러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보도정보와 연결되어 관련된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영상의 전송상태도 볼 수 있다.

<기술적 배경> Ingest 되는 영상은 영상자료 교환 표준포맷인 MXF(Op1a)로 변환되어야 하며, 검색영상은 WMV(Windows Media Video)로 Transcoding 되면서, 장면이 변경될 때마다 대표 장면을 추출해준다. 이를 이용하여 스토리보드를 구성하며, 인물을 추출하여 인물정보를 구축한다. WMV 영상은 PC에서 Preview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Cut을 리포트 편집에 참조하도록 요청도 가능하다. 리포트가 완성되면 NLE에서 바로 부조로 Network 전송요청을 할 수 있다. 모든 기록은 영상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고 MAM 접속자에게 Display하게 된다. 취재 현장에서 영상을 전송할 경우, 영상편집팀도 볼 수 있어 별도의 업무연락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개발하면서> 기계는 사용하는 사람의 적응도에 따라 좋거나 나쁜 시스템이 된다. 기존의 아날로그 시스템이 수십 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듯이, 디지털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노하우로 쌓아야 한다. 특히 장비가 컴퓨터로 바뀌면서 개인별로 특이한 Workflow가 생기는데, 이러한 것은 전체 업무흐름에 맞추어야 자동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한정된 자원을 나눠 쓰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향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YTN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힘이 되는 시스템이 되길 기대한다.

박형일 차장대우 디지털기획팀



YTN타워 1층에 HD TV 설치

기술국 김태동 부장이 지난달 3일 YTN타워 로비에 HD TV를 설치하고 있다. YTN을 찾는 방문객과 출연자들은 1층에 들어서자마자 생생한 HD화면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 기술국은 비용절감과 디자인까지 참작해 거치대를 직접 제작하는 등 적극성을 발휘해 사내에 모범이 됐다.



다중 안양 심성 메리츠증권 신한금융투자 CYON

제6회 YTN 해외리porter 실무연수

고충과 건의사항, 이해해주고 격려해준다!

안녕하십니까? YTN 모스크바 인터내셔널 최한나 리porter입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6일까지 해외리porter 기자실무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전 세계 각국(미국, 러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캐나다, 일본, 사이판)에서 10명의 리porter들이 모여 그동안 리포팅 하는데 어려웠던 점들과 궁금한 사항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해외방송팀 주최로 실시된 이번 연수는 YTN선배님께서 현장에서 느끼신 경험을 바탕으로 기사 작성, 촬영, 내레이션 실무 등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부강사님들께서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부분을 강의해 주셔서 전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화롭게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은 저희 리porter들이 느끼는 어려운 점이나 건의사항을 이해해주시고 고려해주셨다는 점입니다. 국내와는 다른 환경 속에서 최대한 생생하고 유익한 리포팅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리porter들이 빈번히 어려운 점에 부딪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해주시고 격려해주신 YTN 모든 선배님들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YTN '글로벌코리아' 해외방송팀이 있기에 우리 리porter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새롭고 유익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발전할 때 대한민국 국민의 네트워크가 더욱 강력하게 연결될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들어맞는 자랑스러운 우리 YTN 글로벌코리아팀, 파이팅!!!!

최한나 글로벌코리아 러시아 리porter



머나먼 아프리카 소식을 전하다

살아보지 않았다면 말을 하지 마라!



어떤 교민의 피로연이 한식당에서 열린 날, 30여명의 교민이 참석했는데 문득, 웰빙 바람을 타고 한식이 인기를 끌고 있고 먼 아프리카 수단 땅에 한식당이 있다는 자체가 기사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 식당 사장님께 취재를 부탁드렸더니 반응이 좋으시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방문을 했다. 처음엔 순풍에 돛단배였다. 일단 담당PD에게 기사를 보내고 몇 차례의 조율 끝에 최종기사까지 받아놓은 터라 쉽게 수단 소식을 전할 수 있겠다 싶어 기뻐다. 그러나 결국 식당이 너무 왜소하고 빈약하여 방송까지 한다 하니 몹시 꺼리시며 사업도 잘되지 않는다고 거절을 하신다. 그래도 수차례 전화로 꼬시기 작전에 들어갔지만 완강하시다. 나도 오기가 생긴다. 하루는 사전 전화 없이 식당에 찾아가다. 방문한 길에 촬영도 할 겸 일부러 점심시간에 맞춰 갔건만 사장님도 안 계시고 식당엔 손님 하나 없다. 기다리며 나름 외부 건물사진과 내부 전경을 찍는다. 근 한 시간여 기다려도 손님이 없고 사장님도 나타나지 않으신다. 거절의 이유를 감지하면서도 전화를 걸어 내가 왔노라고, 기다리고 있노라고 했더니 몹시 미안해하면서도 여전히 거절하신다. 사업도 안 되고 어쩌고 하시면서...

최종기사까지 얻어내기도 쉬운 일은 아닌데 반 이상 일구어 놓은 건수를 해결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수단에서 외출을 하자면 하루를 꼴딱하고 까먹어야 한다. 그렇게 허탕까지 치고 나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른다. 나의 할 일까지도 포기하고 투자한 시간이었기에 아쉬움은 더하다. 이곳의 날씨는 평균 40~50도 정도로 찜 찜 먹으려 들고 이정표도 없는 길, 나름대로의 이정표를 만든다. 건축 중인 건물에 눈도장을 찍고,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인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타이어에 못이 박혀 펑크가 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차를 아무리 닦으면 무얼 하랴, 시내 한 바퀴 돌고 나면 누런 가루를 뒤집어쓴다. 내 눈엔 거의 폐허에 가까운 건물들, 음산하기 이를 데 없지만 미개국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가당치도 않게 비싸다. 그것뿐이라, 모든 물가가 턱없이 비싼 곳, 어디 한 곳이라도 마음 들 곳이 없는 이런 곳에 왜 이려고

살아야 하는지도 더러 우울증 증세로 나타나는데, 더군다나 나의 업무로도 바쁜 와중에 무슨 부귀와 영화를 누리자고 방송 일을 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다.

내전으로 정세가 불안정 하다 보니 사복 경찰들도 많고 사진 촬영이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몰래 차 안에서 찍어도 어느새 봤는지 소리를 지르고, 대통령 궁을 향해 사진을 찍다가 카메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용케도 도망친 것은 아직도 등골이 오싹하다. 그럴 때 스틸을 느끼며 한동안 뜬 내 자신에게 아이템 발걸을 해서 보내야 할 텐데 하는 숙제를 짊어지고 사는 자신을 돌아본다. 이 어쩔 수 없는 사명감이라고 해야 할지, 수단의 소식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랴 하는 의무감도 더러 나를 자극한다.

촬영을 마치고 나면 한국에 보내는 것도 과제다. 이곳은 전력 상태가 안 좋아 지역별로 자주 정전이 된다. 인터넷은 느린 정도를 넘어 메일 하나 읽는데도 하염없는 시간을 보내야 하기에 미개국이란 미명하에 회사에서는 DHL을 지원해 주고 있다.

문명의 맛을 본 한 지구의 유목민이 과거의 나라에 불시착해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60년대의 삶을 살면서 감사의 마음을 배웠고 한국인임을 소중하게 느낄 줄도 알게 되었고 행복지수가 높아져 작은 일에도 감사하기만 한 삶을 살면서 세계적인 불황에 아끼며 사는 삶을 몸에 배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본다. 수단에서 살아보지 않았다면 말을 하지 말라고 요즘 유행하는 개그를 말하고 싶다. 풍요로운 한국의 삶 속에서 수단의 삶은 어떨지 상상도 못할 것이다.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 둔해지는건지 오히려 모국이 더 뚜렷해진다. 글썸다, 감상적 애국심일지도 모른다. 머나먼 아프리카 수단 땅에서 교민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작은 임무임에는 틀림없다. 본사의 요청이 있거나 없거나 여전히 나는 아이템 발걸에 이리저리 애를 쓸 것이고 방송 테이프를 우야동동 보낼 것이다.

이숙희 글로벌코리아 수단 리porter

가을 편성 개편

3시간 초대형 종합뉴스 신설

뉴스시간 대폭 확대, 분야별 심층뉴스 강화

YTN이 11월 16일 아침 5시 뉴스출발을 시작으로 가을 편성 개편을 단행했다.

뉴스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분야별 심층뉴스를 강화하며, 새로운 형태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신설해 한층 더 다양한 형태의 뉴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번 가을 편성개편의 골자이다.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3시간짜리 초대형 종합뉴스의 신설이다.

가장 먼저 아침을 여는 <뉴스출발>(05:00 ~ 07:50)에서는 하루를 시작하는데 가장 유익한 주요뉴스, 날씨, 출근길 교통 등 생활정보를 엄선해 방송한다. 뉴스출발 3부(07:00 ~ 07:50)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건강, 부동산, 영화와 공연, 재테크, 레저 정보를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오후 1시 <뉴스 & 이슈>(13:00 ~ 15:50)와 5시 <뉴스 Q>(17:00 ~ 19:50)에서는 시사각각 들어오는 주요 뉴스와 새로운 뉴스를 빠짐없이 보도하고, 이슈와 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생방송 출연을 확대해 한층 깊이 있는 뉴스 분석을 시도한다.

이번 편성 개편에서는 국제뉴스, 경제뉴스, 문화 & 연예 뉴스 등 분야별 심층뉴스를 대폭 강화했다.

아침 7시대(뉴스출발 4부)와 오후 6시대(뉴스Q 4부)의 문화뉴스 코너에선 다채로운 문화-연예계 뉴스를 생생히 전달한다. 매일 아침 8시엔 국제뉴스 전문 프로그램인 <월드투데이>를 신설했다. 국제부 기자가 보도국 스튜디오에 출연해 밤사이에 들어온 주요 외신을 정리하고, 미국

과 일본, 중국의 특파원을 IP캐스터로 연결해 따끈따끈한 국제 현안을 깊이 있게 짚어본다. 오전 8시 반에 시작되는 <뉴스오늘>은 증시 개장 시간을 전후해 증시 상황을 비롯한 경제뉴스를 집중 방송하고 당일 예정된 주요 이슈를 자세하게 안내한다.

심야뉴스(01시 ~ 04시)도 30분으로 확대했다. 재외동포 참정권 확대 등 동포들의 국내 소식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편성이다.

이와 함께 주말이지만 뉴스 수요가 많은 토요일 아침 시간대를 겨냥해 2시간 종합뉴스(토요일 뉴스출발 05:00 ~ 06:50)를 신설했다.

오전과 오후 주요뉴스 프로그램의 30분대엔 <뉴스 터치>를 배치해 주요뉴스와 갓 들어온 뉴스를 속도감 있게 전한다. 깊이 있는 토론과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YTN포커스>는 매주



뉴스&이슈 (월~금 13:00~16:00) 하루의 뉴스가 숨 가쁘게 밀려드는 시간. 현장 기자들과 취재원들을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연결해 살아 숨쉬는 뉴스를 속도감 있게 전한다. 이슈를 발굴해 깊이있는 뉴스를, 현장 연결로 기동성있는 뉴스를 선보인다.

수요일에 방송되고, 뉴스메이커와 화제의 인물을 찾아가는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 <현장 인터뷰 24>가 새로 신설돼, 매주 금요일 낮에 방송된다.

이번 가을 편성 개편으로 뉴스 시간은 평일의 경우 하루 평균 9% 가까이 늘어났고, 주말 뉴스는 6% 이상 늘어났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뉴스전문 채널 YTN의 위상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남 편성운영팀장

기자에서 앵커로

‘오직 두려운 건 시청자’



처음 알아보는 앵커자리. 모든 것이 낯설다. 표정은 굳었고 목소리는 상기됐다. 화려한 스튜디오 안 눈부신 조명 아래 기사를 토박토박 읽으려 애쓴다. 그럴수록 긴장은 배가된다. 부담감은 측정불가. “뻔뻔해지자. 자신감을 잃지 말자.” 주문을 의우듯 하루에도 수없이 되뇌어본다. 지난 11월 16일 뉴스를 진행하면서 생긴 버릇이다. 방송 기자와 앵커가 이렇게 다를 줄이야.

정치부에서 앵커팀으로 옮겨 처음 맡은 프로그램은 [뉴스출발]. 이번 편성개편으로 새롭게 시청자들을 찾아가는 아침 종합뉴스다. YTN 뉴스의 출발점이자 다른 방송사와 진검 승부를 펼칠 수 있는 시간대에 포진해 있다. 평일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방송 시간은 무려 3시간. 토요일도 2시간 방송한다. 매일 매일이 전쟁일 수밖에 없다. 강홍식 편집 1부장과 정재훈, 황보연, 김수진 PD가 담당이다. 그 외 여러 스태프들이 새벽부터 고생한다. 여자 앵커는 이여진 기자다.

방송을 끝내고 휴대전화를 확인한다. 도착한 문자 메시지가 여러 개다. 내용은 비슷하다. “표정을 더 밝게 하라. 허리를 꼴꼴이 세워라...” 앵커를 맡으면서 3그룹으로 나뉘어 모니터를 부탁했다. 아내와 부모님, 친척 등 가족 그룹이 첫 번째이고 회사 선배배가 두 번째다. 마지막으로 기자 생활 하면서 알게 된 취재원과 지인들도 ‘이종구 앵커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 방송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그들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술 마시고 아예 밤을 꼬박 새운 뒤 뉴스를 봤다는 문자 메시지도 가끔 온다.

오전 6시에 시작하는 [뉴스출발] 3부에는 ‘이시각 보도국’이라는 꼭지가 있다. 야근 기자가 밤사이 사건사고를 쟁

겨 스튜디오에서 전해준다. 한창 졸음이 밀려오고 피곤에 지칠 때다. 하나같이 눈은 충혈됐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프로 의식이 믿음직스럽다. 7시, 뉴스출발 4부엔 그날의 이슈를 전하기 위해 취재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한다. 재테크, 건강 등을 주제로 외부 전문가들도 매일 시청자들을 만난다. 이른 아침, 풍성한 뉴스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앵커는 뉴스의 전달자일 뿐 뉴스를 평가할 해설자나 정치가가 아니다.” 미국 CBS방송의 전설적 앵커로 평가받았던 월터 크롱카이트의 말이다. 닳은 이미 내려졌다. 중심을 잡아야 한다. 어떤 파고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신문 광고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오직 두려운 건 시청자’다.

앵커덕 본다는 덕담은 기대하지 않는다. 처음이니 욕심내지 않겠다. 하지만, 그런 기간은 짧아야 한다. 하루 빨리 YTN 뉴스를 빛내는 데 일조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 시청률도 신경 쓰인다. 편성 전과 편성 후, 아니 이종구가 앵커를 맡은 이후와 이전이 궁금하다. 의욕은 넘치니 기대하시라.

이종구 앵커팀

2009 임형주의 가을콘서트

행복과 희망을 느끼다!

이런 얘길 아시나요? 러시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3백 루블이 생긴다면 고아원에 무얼 사서 가겠니?” 한 아이는 빵을, 또 다른 아이는 초콜릿을 사가겠다고 대답했다지요. 교사가 말했다. “볼쇼이 발레의 티켓을 가져가겠다. 빵은 먹고 나면 다시 배고프고 초콜릿의 달콤함도 한순간이면 사라질 테지만 어려운 시절 보았던 볼쇼이의 추억은 평생 아름답게 남아있을 것이기에...” 이것이 러시아인의 지혜입니다. 저녁 한 끼쯤 건넌뒤어도 좋은 공연은 놓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주머니의 돈을 모두 털어서 길거리 화가에게 초상화를 그리게 하는 사람들, 이들은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깨어져도 문화를 지니고 있으면 다시 일어선다고 굳게 믿고 있지요. 그리고 그 믿음 그대로 러시아는 다시 일어선고 있습니다.

‘2009 임형주의 가을콘서트’는 시청자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7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됐습니다. YTN으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 영역이었기에 준비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공연 당일에는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가 전면 통제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늦게 도착하시는 관객들을 최대한 배려하여 공연은 10

여분 늦게 시작되었고, 일반적인 공연에선 발생하지 않는 공연 시작 후 출연자의 멘트 시간마다 관객들을 입장하게 하는 촌극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곡 정도의 공연이 진행되었을 때 그 많던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의 좌석은 가득 찼고, 출연진과 관객들은 가을밤의 아름다운 정취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관람객 중엔 지팡이를 짚고서야 걸을 수 있는 팔순 노모도 계셨고요, 멀리 부산·고성·진주·보성·목포·제주·광주·전주·대구·강릉에서 찾아와 먼 길을 다시 떠나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로지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일부러 한국을 찾은 일본 관객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아쉬움을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그리고 임형주의 여러 콘서트 중 가장 많은 공연 후기를 남긴 인터파크의 관람 후기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한 달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러시아인의 지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문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제도를 만들고 메세나 운동을 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열심을 내고 있지만, 일반 국민이 스스로 공연장을 찾고 문화와 예술

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YTN이 주최한 ‘2009 임형주의 가을콘서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터파크에 실린 한 관람객의 관람후기로 글을 마칠까 합니다. 아직도 생생한 멋진 공연, 정말 가고 싶었던 공연이라 손꼽아 기다렸던 임형주의 가을 콘서트였다. 팬층이 정말로 다양했다. 일본 분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여성층은 물론이고 주변에 초중생도 보이고 남자분들, 그리고 연세 지긋하신 할머니도 계셨다. 할머니는 환갑이 넘은 며느님과 따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처음 보는 공연이라 정말 좋으시다고....

선구자를 부를 때는 감격의 눈물이 나서 혼났다고... 앞으로 임형주 공연은 꼭 와보고 싶다고... 삶의 희망을 얻었다고 더 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 할머니의 연세는 올해 딱 90세라고 하셨다.



박상준 사업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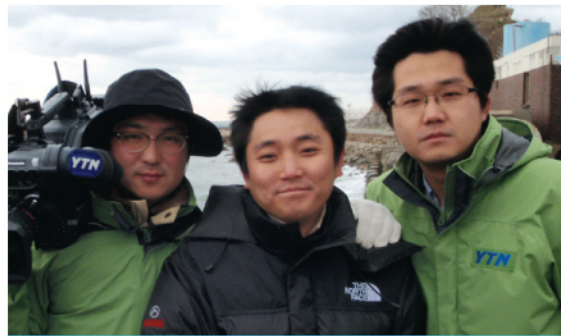
대청도 취재 특종기 - 북한군 해안포 레이더 작동

갑작스런 경적, 분주한 군인들...

아닌 밤중에 흥두깨였다. 황금 같은 야휴를 즐기고 있던 저녁 6시. 캡에게서 걸려온 요란한 전화 벨소리에 눈을 떴다. 내일 당장 섬에 들어가라는 지시였다. 교전이 발생했다. 부랴부랴 배편부터 알아봤다.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 뱃길이 끊겼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해군이나 해경 경비함은 뜰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도움을 구했다. 기다려 보라는 답이 왔다. 발만 동동 구르며 이틀을 인천항에서 기다렸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3천톤 급 해양경찰 경비함이 서해 EEZ로 떠난다는 소식이 왔다. 2전 3기만에 배를 탔다.

인천에서 대청도까지 2백여 km, 뱃길로 11시간을 갔다. 칠혹 같은 어둠이 바다를 감싸고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수심이 얕아 더 이상 이 배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 경비함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구명정에 올라탔다. ‘드르렁’ 크레인 돌아가는 소리가 나더니 아파트 3층 높이에 있던 구명정이 바다로 내려왔다. 파도가 높아 배 곳곳으로 물이 들쳤다. 해경 특공대원이 비추는 손전등에 의존해 대청도에 들어왔다. 보트피플이다.

어렵게 들어 온 만큼 어떻게든 교전 현장에 가겠다는 욕심이 생겼다. 잠겨있는 문을 두들겨 회한 접시와 소주 2병을 사들고 해경 파출소부터 찾아갔다. 교전 장소가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고, 날씨가 안 좋아 어선을 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경비정을 얻어 타는 게 현명한 방법이란 판단이 섰다. 오고 가는 소주잔에 정이 싹트고, 던지시 교전현장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부탁했다. 설득하기를 2시간여. 다음날 새벽 살짝 다녀오자는 약속



11월 16일, 대청도 선진포항에서 왼쪽부터 시철우 기자, 김성욱, 강진원

을 받았다. 다음날, 5백톤급 해경 경비정을 타고 교전현장 5km 앞 해상까지 나왔다. 북한 땅과 뱃길로 20여 분, 군 통제구역이라 더 이상은 들어가지 못했다. 인근 해상에는 해군 초계함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 보이는 것은 5미터 높이의 파도 뿐. 멀찌감치 있는 황해도 웅진군 기린도만이 교전 당시의 증인이었다. 평온과 불안이 공존했다. 경비정 갑판과 함께 잡아먹을듯한 파도와 한바탕 씨름을 한 뒤 항구로 돌아왔다.

낮 12시, 전날 밤 미리 작성해 뒀던 기사에 스케치만 바꾼 뒤 바로 기사를 올렸다. 편집이 끝나고 오후 1시쯤부터 리포트를 인터넷으로 송출했다. PC방이 없어 전날 미리 부탁한 해경 파출소의 외부 인터넷망을 이용했다.

갑자기 경적소리가 들렸다. 대청항 내 해군 포구에 정박해 있던 참수리호 4척에 시동이 걸렸다. 교전이 발생한 뒤 참수리호가 출동준비를 하기는 처음이었다.

구명조끼를 입은 군인들이 갑판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함포가 상하 좌우로 이동하며 조준점을 맞췄다. 대청항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해군 초계함도 어디론가 사라졌다. 긴장이 감돌았다. 촬영기와 함께 부리나케 참수리호가 정박해 있는 포구로 달려갔다. 교전 뒤 연일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다. 뭔가 일이 발생했다는 직감이 들었다. 무슨 연유 때문인지 취재를 시작했다. 보안사항이라는 답변만 계속 돌아왔다. 애를 태우는 사이, 우리를 태우고 들어왔던 해경 3천톤 급 경비함이 서해 NLJ근처에서 남쪽으로 피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 해안포의 레이더 작동 징후가 포착돼 공격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6시부터 취재한 내용을 단독 기사로 송고했다. 3번의 시도 끝에 어렵게 들어온 대청도였다. 다른 생각 말고 무조건 열심히 하자는 약속을 동기인 촬영기와 하고 들어왔다. 그게 기회로 돌아왔다. 우리 숙소에서는 해군 참수리호를 볼 수 없었다. 최대한 빨리 방송을 내겠다는 욕심에 전날 밤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발생한 오후 1시, 숙소에서 리포트를 쓰느라 정신없었을 것이다. 교전에 참가했던 해군 참수리호를 코앞에 두고 시쳇말로 물먹을 뻔 했다.

그날 서해 대청도에 첫눈이 내렸다. 올해 첫눈은 시커먼 머스마(?) 둘과 38선 이북에서 함께 했다. 우울했다. 두 번의 전화연결과 리포트 작성까지 끝내고 소주잔을 기울였다. 특종이라는 달콤한 안주를 위안 삼으며...

강진원 사회부

굽직한 사건사고로 점철된 역사 - 대구지국

벌떼처럼 모였다 흩어졌다

대구 수성구! 흔히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이곳은 서울에 비할 바 아니지만 그래도 분지, 달구벌에 사는 '촌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이다. 그 수성구에 YTN대구지국이 있다. 대구문화방송의 거창한 빌딩과 마주하고, 덕분에 공원으로 잘 조성된 문화방송의 뜰을 우리 것인 양 즐기고 있다. 손님이 오면 우리 공원 멋있지? 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한다. 지난 2002년 봄, 대구지국은 외진 곳에 있는 연합뉴스의 건물에 세들어 있다 지금의 건물로 옮겼다. 수성구에는 오래전부터 공공과 3사가 모여 있는 방송타운이라 그 상징성과 업무효율을 위해서도 이전이 필요했다. 당시만 해도 전국 지국들 사무실 환경은 참으로 열악했다. 그 '피조적한 삶으로부터 탈출'을 대구지국이 제일 먼저 앞장섰지만, 책 한 권 쓸 정도로 우여곡절도 참 많았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지만, 무관심한 본사로부터 뭔가를 쟁취하는 외롭고 고달픈 과정이었다.

지난 15년 세월 대구지국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우선 6명의 요원(?) 가운데 목은당이(경상도 말로 오래된 사람)가 3명이다. 영상을 책임지는 박태근 차장과 전기호 차장 그리고 유성래 과장(우리는 그를 '과장'이라 칭한다)이다. 채장수 지국장은 본사에 근무하다 십여 년 전 합류했고, 지난해 내려와 발군의 실력을 뽐내는 허성준 기자는 아직 새내기다. 오디오맨 이근성은 벌써 두 번째 함께 근무하고 있다. 신, 구가 조화를 이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정예요원들이 썩이다.

"1994년, 사무실에 첫 출근했는데 달랑 책상 두 개와 전화기 두 대뿐이어서 혹시 속은 거 아니냐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유 과장의 농담은 지금도 우리끼리 모여 대구지국의 역사를 되풀 때 마다 올라오는 단골메뉴다. 그러나 이 추억은 현재 대구지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동시에 파안대소를 터트리게 하는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그만큼 위상이 급반전을 거듭해 왔다고 자부한다.

어찌 보면 대구지국의 지난 세월은, 굽직굽직한 사건사고로 점철된 역사의 현장을 누벼온 역사라 할 수 있다. 이 일에

조직의 역량을 쏟아 붓기에 정신이 없었다. 한 때 언론은 대구경북을 '우리나라 사건사고의 교보재'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연달아 터졌다. 아직도 네티즌들 사이에는 뭘 일이 터지면 '또 대구야?'라고 지레 말할 정도로 그 여진은 남아 있고 도시 이미지도 나쁘다. YTN 출범과 함께 1995년 4월에 터진 대구지하철 1호선 상인동 공사장 가스폭발사고를 시작으로 지하철1호선 중앙로역 화재참사, 상주시 운동장 압사사건, 달성 현풍터널 미사일 추진체 폭발, 목욕탕 화재, 서문시장 화재, 수하여행버스 전복 등 일일이 헤아리기도 힘들다. 2건의 지하철 참사에서만 293명의 사망자를 낸 정도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불러왔다. 사건사고 발생 유형도 한마디로 희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당연히 외신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일쑤였다. 대구검찰 수사도 만만치 않았다. 최소 한 달에서 몇 달씩 이어지는 전국적인 관심사를 끄는 사건들이 많았다. 대기업과 권력 비리, 공무원 비리, 고위 검사 항명 파동 등이 뜨거운 쟁점이 되기도 했다.

덕분에 본사는 물론 가까운 지국 선배들이 대구지국으로 몰려드는 경우가 허다했다. 큰일이 터지면 '벌떼처럼 모였다 흩어진다' 관행이 대구에서는 다반사로 벌어졌다. 세를 결집해 YTN의 힘을 키우는 보람도 있었지만 솔직히 미안할 때도 있었다. 정신없이 일들을 치르면서 나름의 특종도 했고 무엇보다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 온몸으로 막을 때가 많았다. 경쟁사들의 영상도 슬하게 얻어 다급한 상황을 모면하기도 했다.

당연히 대구지국의 취재형태는 대구경북의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지난 십수 년간 대구경북의 민심은 날로 날카로워지고 패배주의에 깊이 빠져 들면서 '밝은 기사'는 엄두를 내지 못할 지경이었다. 대구가 고향이면서 서울에 살고 있는 골수 시청자 2~3분이 항상 항의 전화를 해 왔다.

'유독 대구에서 올라오는 기사만 어두운 것이 많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논리비약을 일삼기 일쑤였다. 지역의 지도층들이 과거 '권력의 착시'에 젖어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면서 지역발전의 기회를 놓쳐 버린 것이다. 그 대가는 주민들에게는 기나긴 고통으로 남아 있었다. 그나마 최근 들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되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면서 다소 온기가 도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우리 대구지국도 지역에 웃음소리가 다시 퍼져 나가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중장청년층으로 구성된 대구지국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한마디로 끈적끈적하다. 오랜 세월 동안, 매일 보는 뻔한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이미 한 식구라는 공동체로 자리 잡았다. 물론 누구나 그렇듯 서로 간에 갈등도 있을 때가 있다. 서로 복돋우고 허물을 덮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알고 있기에 문제될 게 없다.

앞으로 지국의 위상은 얼마나 입체적으로 다듬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 YTN을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아 화나고 섭섭했던 기억은 사라진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모 유력 단체장은 YTN카메라가 일주일만 안 보여도 참모들을 털털 볶을 지경이다. 취재 의뢰도, 제보도 눈에 띄게 늘었다. 취재원들도 영향력을 실감하고 있다. 야망을 가진 사람들의 선호도가 특히 높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여러 여건상 널려진 구슬을 꿰는 작업이 만족스럽지 못해 항상 아쉽다.

대구지국은 본사와 한 몸으로 움직이면서도, 대구경북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하고 주민들의 행복에 동참하는 보람을 이루고자 한다. 장차 대구지국 사옥 신축을 꿈꾸며...

채장수 대구지국장



왼쪽부터 허성준기자, 전기호차장, 유성래, 채장수지국장, 이근성, 박태근차장

피그말리온을 그리워하다

세 가지 이야기, 두 번째 답변

1. For What?

IT붐이 한창이던 2000년 11월, 온라인 커뮤니티 세이클럽은 깜짝 발표를 한다. 온라인 캐릭터인 아바타를 돈 받고 팔겠다는 것. 당시만 해도 채팅 서비스라면 으레 무료 제공되던 아바타의 유료화란 터무니 없는 생각이었다. 밖에선 “되겠어?”라든가 “꽤심한, 될 턱이 있나”라는 차가운 반응뿐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강행했고, 다음해인 2001년, 세이클럽의 아바타는 각종 언론이 선정하는 올해의 히트상품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렸다. 그리곤 강산이 한 번 변하기도 전에 유료 아바타는 인터넷 강산을 바꿨다. 세계 인터넷업계에 당연한 서비스 모델의 하나가 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올해 이통업계의 큰 이슈 하나는 미국 애플 아이폰의 국내 출시였다. ‘나온다’, ‘안 나온다’를 수없이 오가던 가운데, 국내 반응은 각양각색이었다. 스마트폰 시장 잠식을 우려하는 기업은 다양한 언론플레이로 아이폰 깎아내리기에 몰입했고, 아이폰의 시장 재편을 기대하는 쪽은 지체되는 출시 일정에 분통을 터뜨렸다. 어쨌거나 KT를 통해 나온 아이폰은 출시 전 예약으로만 수 만대가 팔려나갔다. 어찌된 일일까? 애플이 미국에서 아이폰을 첫 출시한 것은 2007년 아직 만 3년도 안 된 아이폰이 수십 년 휴대폰을 만들어 온 기업의 제품과 다른 반응을 이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롤러코스터. 놀이기구가 아니다. 한 케이블TV의 프로그램 이름이다. A급이라 할 수 없는 단출한 출연자에 뻥한 소재. 하지만, 시청자들은 열광한다. 왜일까? 극도로 밋밋한, 감정을 쏙 빼 버려 마치 책 읽는 듯한 내레이션이 한 몫을 했을까? 다른 프로그램이라면 NG라 할 만큼 밋밋한 내레이션으로, PD는 승부를 걸었다. 여기에 재미를 느꼈을까? 그런가 보다. 벌써 여러 기업이 패러디 CF로 따라나섰다. 시쳇말로 대박이다. 대박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오는가 보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딱딱한 다음 챕터는 성우 서혜정 씨의 롤러코스터 대박 내레이션 톤으로 읽어보기로 하자.

2. And What?

한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은 새로운 분야의 서비스를 개척하고자 한다. 수많은 회의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한다. 철저한 시장 조사와 분석을 거쳐,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낸다.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군.” 기업은 기술 개발에 매진한다. 이 기술은 국가표준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적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기업은 기술 개발과 동시에 표준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때론 경쟁사와 협력도 하고, 때론 강력하게 주장도 하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표준화를 마친다.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정부 허가를 받는 작업도 빼놓을 수 없다. 기술 차별화를 위해 또는 사업적인 방어책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특허도 출원, 등록한다.

서비스를 위해선 협력사가 필요하다. “많을수록 좋다.” 서비스의 원천 재료를 공급할 업체부터, 단말기를 만들 하드웨어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 미들웨어 업체, 제품을 팔 유통업체까지. 수백 개 업체들과 접

촉해서 수십 개의 협력사를 만들어낸다. 길고 어려운, 하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정이다. 각 협력사가 원하는 협력의 모양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들을 성심성의껏 대응해야 한다. 때론 특정 협력사가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 적용하기도 한다. 번거롭지만, 매출을 내려면 감수해야 한다.



서비스의 고객, 소비자에게 새 서비스를 알려야 한다. 시장을 면밀히 살피며 시의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 잘 짜여진 홈페이지는 기본, 신문광고나 홍보 CF도 만들어 집행하고, 인터넷 카페나 UCC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에도 힘쓴다. “이런, 경쟁사들이 인터넷과 언론 매체를 통해 음해공작을 펴는군.”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각 매체 기자들을 만나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자사에 유리한 기사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 SMS나 이메일을 통해 때때로 고객에게 직접 홍보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소비자에게 서비스 요금을 받기 위해선 만만치 않은 준비가 필요하다. 빌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십억 원을 들일 순 없다. “어떡하지?” 최대한 테크닉을 발휘해 자체 개발로 대신한다. 요금 결제를 위해 결제대행 서비스도 이용하고, 또 들어온 금액은 기업 회계기준에 맞게 일할 계산해서 매출을 잡아야 한다. “머리 깨질 만큼 복잡한 일이지만, 돈 버는 일이니 즐겁게 하자.”

고객을 위해 콜센터도 운영한다. “고객은 왕이니까.” 까다로운 질문에도 친절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준다. 용역은 주지만, 날로 발전하는 서비스를 잘 설명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은 필수다. 하지만,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니, 용역 대신 직접 운영하기로 한다. “일이 더 늘었다.” 역시 돈 벌자고 하는 일이니, 행복하게 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위해, 신기술, 새 트렌드를 공부하는 일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을 얘기하자면, 이 모든 일들은 한 기업이 아닌 우리 회사 1개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다. 아니, 더 정확히는 그 팀의 여러 사업 중 ‘one of them’ 일 뿐이다. YTN DMB 데이터서비스팀. 팀장 포함 여섯 명, 그나마 한 명은 며칠 전 수습 따지를 댄 새내기다. 제 분야에 내공을 갖춘 인재들이, 목숨 걸고 일하고 있다. 아직 시장이 크지 않아, 대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1위다.

3. So What?

그리스 신화에서 키프로스의 왕이자 조각가인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조각한 아름다운 여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 이에 감동한 여신 아프로디테는 그 여인상에 생명을 주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여기서 따온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이다. 쉽게 말해, ‘잘 한다, 잘 한다’ 하면 진짜 잘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반대가 스티그마 효과, 낙인효과다. ‘넌 안 돼.’ 라는 낙인이 진짜 못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스티그마가 가득한 분위기다.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정말 발전을 기대한다면, 낙인 대신 격려와 박수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마도 서두에 얘기한 세 가지 성공 사례는, - 좋은 아이디어가 선행된 것은 물론이지만 - 적어도 그 회사 내에서 스티그마가 아닌 피그말리온으로 힘을 얻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요즘처럼 그냥 ‘방송’만으로 미래를 대비하기엔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요즘 뭐해?” “데이터방송?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몇 달 전 사보에 친절(?)하게 설명했던,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여전히 질문으로 인사말을 대신하시는 여러 사우들을 위한 나의 두 번째 답변이다.



기정훈
YTN DMB
데이터서비스팀장

도전! 신기록

생활 속엔 기록이 숨어있다

엄마, 아기는 어디로 나와?
아빠, 바퀴벌레는 무슨 맛이야??
까마득한 어린 시절 부모님께 물어보면 한 대 맞았을 법한 질문들을 떠올려보라.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던 그 엉뚱한 질문들에 경의를 표하며 플러스마이너스 오차 0%의 정답을 제시하고자 발바닥 각질이 훑훑 날아가도록 동분서주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사이언스TV 간판 프로그램을 꿈꾸며 사무실 한 켠 회의실에서 모종의 음모, 아니 마라톤 회의록을 하고 있는 <도전! 신기록>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못 젊은이들의 청춘이 활활 타오르는 이 시각에 그들은 오직 대박방송을 위한 투지를 불태우며 밤 늦은 시간까지 방송 모니터와 아이템 회의로 열을 올리고 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했던가? 그렇다면 <도전! 신기록>은 죽도록 기록을 남긴다는 말씀! 지금부터, <도전! 신기록>의 좌충우돌 재미있는 기록들을 한 장 한 장 펼쳐보자.

기록1. <도전! 신기록>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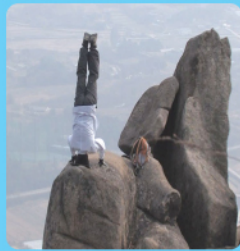
신기록은 스포츠에서만 나온다?? 아니다! 기록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활동 속에 숨어 있다. 평범한 듯 결코 평범하지 않은 세상사는 이야기들! 엉뚱하고 황당하며 새로운 기록을 찾기 위한 리얼 실험프로젝트 <도전! 신기록>의 도전은 쭉~욱 계속된다.



[대한민국 챔피언]

대한민국 최고 - 세계에서 가장 긴 인절미 만들기

한국기록원과 연계하여 성공과 실패가 엇갈리는 휴머니티와 생생한 신기록 도전현장을 소개하는 코너.



[땀! 별별 도전]

때로는 황당하고 때로는 무모한 도전!

미치도록 웃기고 눈을 나게 슬프고 아이없게 황당한 별별 특종을 찾아 VJ가 나섰다!! 세상에 지런 일이, TV특종! 놀라운 지구, 무모한 현대류의 프로그램과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차별화된 코너. 특히, 오랜 업무에 눈이 피로할 때 2005년 미스코리아 출신 리포터를 보며 눈을 맑게 정화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그 후 5년 간 미스코리아는 어떻게 변했을까...

기록2. <도전! 신기록>의 탄생과정에 대하여

2009년 무더웠던 지난 7월, 사이언스 스페셜 “녹색의 꿈” 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생태 환경을 탐사하는 대학생들을 따라 10박 11일간의 동행 취재를 다녀왔다. 40여 개나 되는 촬영본 테이프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즈음. (본부장님이 부르셨다) <도전! 신기록>과 나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 됐다. 기네스 기록에 도전이라는 새로운 아이템 <도전! 신기록> 과연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도전이었다. 컴퓨터 마우스가 손바닥에 붙은 듯 하루 10시간 이상 자료조사를 하며, 기나긴 여정을 함께 할 신기록호의 구성원들을 꾸리기 시작했다.

망망대해 거센 폭풍우를 만나 배가 좌초되고 표류하더라도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연출팀과 VJ, 그리고 작가팀을 구성하고, 출연자와 외주 촬영팀까지 한명 두명 신기록 호에 승선시키며 프로그램 제작의 모든 준비가 물 흐르듯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기록호의 여정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다. 바로 신종플루였다. 신종플루로 인해 전국 각 지역의 문화 축제가 축소되거나 취소되었고 아이터ම්들이 하나 둘 없어지기 시작했다. (지역 축제에 기록도전 행사가 많음) 순항하던 신기록호는 무려 2개월

이란 시간동안 망망대해에 표류되고 말았다.(솔직히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다는...) 그러나,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처럼 정체됐던 신기록호가 슬며시 바람을 타더니 지금은 최고급 모터라도 달아놓은 듯 초고속으로 순항중이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이처럼 말 많고 탈 많은 적도 없었지만, 그만큼 애정이 가는 <도전! 신기록> 이제 남은 건 12월 4일 사이언스TV 첫 방송을 기다리며 열정을 다해 최고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기록3. <도전! 신기록>을 만드는 이들

<도전! 신기록>을 만드는 이들에 대하여 약간의 오버를 보태자면, 이들은 사이언스TV 제작팀 내에서도 기록적인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10명의 제작진이 탄 큰 배의 선장적인 정PD는 전체 팀 업무를 조율하며 마지막 한 잔까지 들이키는 소주 사랑으로 열근하고 친근한 팀 분위기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그 외 착한남자 윤PD, 이천수 선수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구PD 등 훈훈한 청년들이 그의 든든한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항상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는 카메라 감독과 6mm 촬영팀, 그리고 2005년 미스코리아 출신의 초 미녀 리포터 희영씨도 빠질 수 없다. 무엇보다 MC인 메기병장 이상은 선생님과 한국기록원 김덕은 원장님이 없었다면 <도전! 신기록>도 없었을 터. (제발 현장 애드립 좀 그만! 대본대로 해주세요~ 편집하기 힘들어요!)

작가진에 관해서라면 사무실 내 누구나 인정하다시피 (웬지 무섭다;;) 최고의 드림팀 미모작가군단 최은경, 정주미, 이윤경작가~! 나이와 결혼여부를 물어보면 하나같이 깜짝! 놀란답니다. 이 사람들이 푹푹 뭉쳐 만들어 내는 작품이 바로 <도전! 신기록>이다.

정재기 사이언스TV 제작팀



도전은 도전일뿐 포기하지 말자!
<정재기 PD>

관찰타이양~ 우유빛깔 도전 신기록!
<이윤경 작가>

도전하는 당신과 기록하는 우리의 환상 하모니!
도전 신기록~개봉박두!
<정주미 작가>

땀! 별별 도전, 있다! 별별 스텝
<구본진 PD>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도전 파이팅!
<최은경 작가>

알려라온 밤, 알려라온 시청률이예요~
<유희영 리포터>

함께하는 도전에 하나되는 우리!
<윤해남 PD>

파워인터뷰 - 스타일리스트

깔끔하고 단정하고 예지있게~!

의상실은 5층, 스튜디오는 20층이라 엘리베이터를 갈아타야 ... 생방송에 차질이 생길까봐 무엇보다 난감하죠

앵커의 스타일과 콘셉트에 따라 의상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스타일리스트의 일상을 살펴본다.

본인의 일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미숙 : 아나운서를 돋보이게 만드는 사람 ^^

지현 : 깔끔하고 단정하고 예지있게 ~! ^^ㅋㅋ

하루 일과는

현주 : 전날 미리 의상을 선정합니다. 오전엔 협찬사에 들러 의상을 챙겨오고, YTN에 도착하면 최종 점검해 무리 없는 방송을 하게끔 합니다.

미숙 : 의상 픽업하구 세팅하고 방송 봐주고... 등등

YTN 스타일리스트와 일반 스타일리스트의 차이점

미숙 : 드라마나 뉴스나 잡지나 똑같은 거 같아요. 그 상황에 맞는 의상을 준비하고 그 사람의 체형 스타일을 맞춰주는 것.

지현 : 스타일리쉬하고 유행을 따라 코디하는 연예인 스타일리스트와는 달리, 뉴스채널인 YTN은 시청자의 눈을 분산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힘든 순간과 즐거웠던 때는

현주 : 확산이 안서는 의상이라도 모니터에서 잘 어울릴 때 보람을 느끼며, 세팅한 의상을 갖고 앵커와 계속 의견이 달리 할 때 힘들지요.

지현 : 의상협찬이 잘 안될 때... 힘들었고, 옷이 예쁘다고 시청자들에게 연락 올 때 즐거우면서 뿌듯해요.

YTN 식구 중에서 패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또 패션에 대한 조언을 한다면

현주 : 호준석 앵커의 패션 감각이 뛰어나신듯...

미숙 : 각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자기한테 편하면 되지요 ^^

스타일리스트는 뉴스에 어떤 영향을

현주 : 뉴스란 단지 앵커 한 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명, 카메라, 기술, 분장 등 모든 스태프가 하나로 일치 돼 적진에 앵커만 보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타일리스트는 가장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지요. 시청자로 하여금 의상이 너무 튀거나 가라앉아도 안 되는 간결하고 이지적인 이미지의 의상을 부각시켜줍니다.

지현 : 깔끔한 이미지로 만들어 줘요.

거의 정장스타일의 앵커만 코디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스타일리스트를 한다면?

현주 : 유행에 따르지 않는 시청자의 눈길이 앵커의 의상에 머무르지 않는 단순하면서 이지적인 의상으로 코디하겠습니다.

근무 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회사에 바라는 것은

현주 : 항상 긴장하고 일하는 만큼 직원들이 힘 빠지는 말보다는 격려의 말을 건넬 때 보람을 느낍니다.

미숙 : 당연히 엘리베이터. 의상팀은 시간마다 스튜디오 오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의상실이 5층에 있어서 불편해요. 옷들고 갈아타는데 불편하고, 늦었을 땐 층마다 문 열고 성질 나와요. ㅋㅋㅋ

지현 : 코디 엘리베이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11층에서 환승하는 어려움과 생방송 도중 옷이 잘못될 경우 5층에서 20층까지 가는 시간, 사람들이 타고내리는 시간 때문에 타이밍을 잘 못 맞출 때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미숙 : 적금 통장을 만드는 것과^^ 자동차를 사는 것 .. 글고 돈 마나마니 버는거것 카카카카

지현 : 이 일에서 최고가 되서 돈도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거 ^^*



현주

스타일리스트 이현주입니다. 대학 졸업 후 패션 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제일기획의 선후배의 CF 작품을 계기로 광고 스타일리스트로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미숙

의상 담당 조미숙. 원래 의상에 관심 있어 학원을 졸업하고 드라마 스타일리스트를 하다가 실장님 소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지현

반지현입니다. 나이는 22살이고요! 아직 졸업한지 1년 채 안된 신입입니다. 코디메이크업과를 전공했고 교수님 추천으로 YTN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